



# Chap11 원시 값과 객체의 비교

## 11-1 원시값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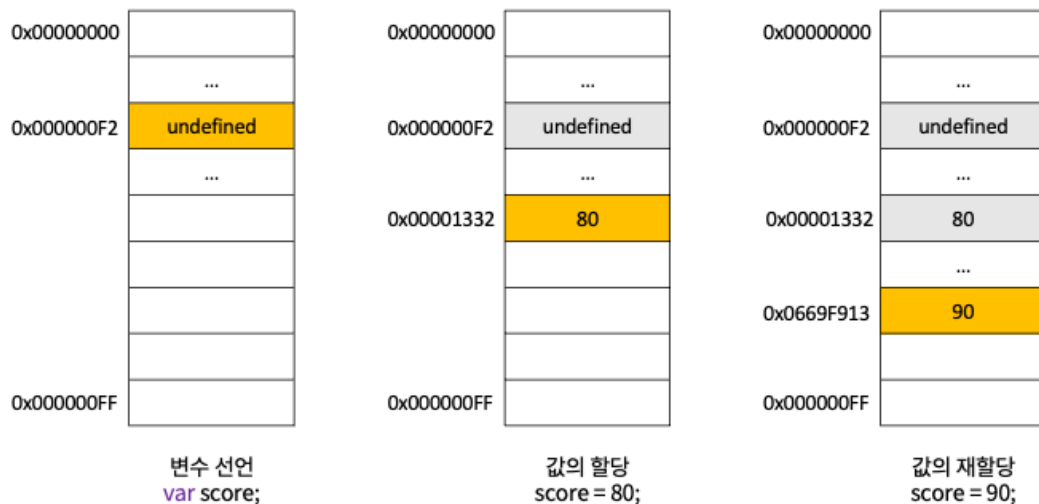
### 11-2 객체

- 원시 타입의 값 : 변경 불가능한 값
  - 원시 값을 변수에 할당하면 변수(확보된 메모리 공간)에는 실제 값이 저장된다.
  - 원시 값을 변수를 다른 변수에 할당하면 원본의 원시 값이 복사되어 전달된다. = 값의 의한 전달
- 객체 타입의 값 : 변경 가능한 값
  - 변수 확보된 메모리 공간에는 참조 값이 저장된다.
  - 객체 값을 다른 변수에 할당하면 원본의 참조 값이 복사되어 전달 = 참조에 의한 전달

## 11-1 원시값

### ▼ 변경 불가능한 값

변경 불가능하다는 것은 변수가 아닐 값이다. 즉 원시 값 자체를 변경할 수 없다는 것이 지 변수 값을 변경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다. 변수는 언제든지 재할당을 통해 변수 값을 변경(교체)할 수 있다.



즉 재할당하여 변수 값이 바뀌는 것이지 원시 값이 바뀌는 것이 아니다. 만약 원시값이 바뀐다고 하면 값을 재할당 할 때 변수가 가리키던 메모리 공간의 주소를 바꿀 필요없이 원시 값만 변경될 것이다.

따라서 원시값은 변경 불가능한 값이기 때문에 **불변성**이란 특징을 갖는다.

## ▼ 문자열과 불변성

```
var str='Hello';
str='world';
```

문자열도 원시값이기 때문에 변수값은 재할당할 수 있어도 원시값은 바꿀 수 없다.

하지만 여기서 헷갈리는 개념이 있다. 바로 문자열은 유사 배열 객체라는 점이다.

### ▼ 갑자기 문자열이 객체??

**유사 배열 객체**란 마치 배열처럼 인덱스로 프로퍼티 값에 접근할 수 있고 length 프로퍼티를 갖는 객체를 말한다.

따라서 **문자열**은 마치 배열처럼 인덱스—를 통해 각 문자 접근할 수 있으며 length 프로퍼티를 갖기 때문에 유사 배열 객체이고 for문으로 순회할 수도 있다.

그러나 아무튼 문자열은 유사 배열 객체이기도 하지만 원시값이기때문에 원시 값을 변경하려고 했을 때 변경되지 않는다.

```
var str='string';
str[0]='S'; //원시값 바꾸려고 시도함. -> 결론은 바뀌지 않음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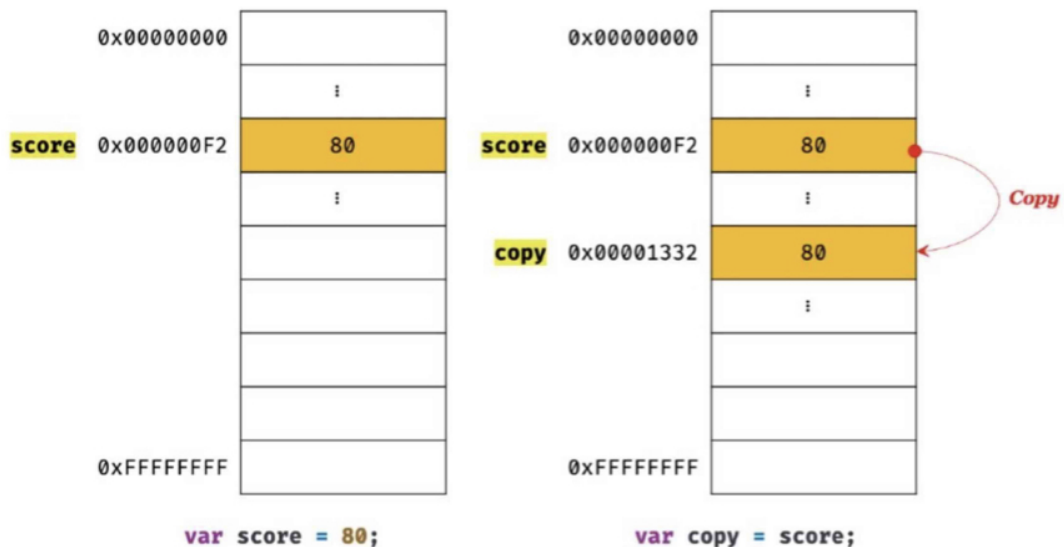
console.log(str); // string -> 값이 바뀌지 않음
```

### ▼ 값에 의한 전달

**값에 의한 전달**이란 변수에 원시 값을 갖는 변수를 할당하면 할당 받는 변수에는 할당되는 변수의 원시 값이 복사되어 전달되는 것

```
var score=80;
var copy=score;

console.log(score); //80
console.log(copy); //80
```



여기서 주의할 점은 `copy`변수는 `score` 변수의 값을 할당받아 같은 값을 갖는다고 같은 메모리 공간에 저장되었다고 착각하면 안된다.

말그대로 복사를 해서 다른 메모리 공간에 값을 저장한 것이다.

따라서 `score`의 값을 변경하면 `copy`의 값은 변경되지 않는다.

```
var score=80;
var copy=score;

score=100;
console.log(score); //100
console.log(copy); //80
```

그렇다면 의문점이 드는데 변수에는 값이 전달이 아니고 메모리 주소가 전달되는 거 아닌가?

그렇다 메모리 주소를 전달해주는 것이다. 사실 값에 의한 전달이라는 용어를 쓰는 이유가 타 언어에서 자주 사용해서 이지만 그렇게 썩 맞는 말은 아니다. 그래서 공유에 의한 전달이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다.

**결론적으로** 두 변수의 원시 값은 서로 다른 메모리 공간에 저장된 별개의 값이 되어 어느 한쪽에서 재할당을 통해 값을 변경해도 서로 간섭할 수 없다.

## 11-2 객체

### ▼ 변경 가능한 값

객체를 할당한 변수에 참조(메모리 공간의 주소에 접근하는)하면 메모리에 저장되어 있는 참조 값을 통해 객체에 접근한다

- 복사했을 때

사진

참조 값이 복사된다.

객체는 크기가 크고 프로퍼티로 또 객체를 갖고있을 수 있어서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복사해서 값을 변경하게 안하고 바로 값을 변경할 수 있도록 설정했다

### ▼ 얕은 복사 깊은 복사

얕은 복사는 객체의 한 단계까지만 복사하는 것을 말하고,

깊은 복사는 객체에 중첩되어 있는 객체까지 모두 복사하는 것을 말한다.

```

const o = { x: { y: 1 } };

// 얕은 복사
const c1 = { ...o }; // 35장 "스프레드 문법" 참고
console.log(c1 === o); // false
console.log(c1.x === o.x); // true

// lodash의 cloneDeep을 사용한 깊은 복사
// "npm install lodash"로 lodash를 설치한 후, Node.js 환경에서 실행
const _ = require('lodash');
// 깊은 복사
const c2 = _.cloneDeep(o);
console.log(c2 === o); // false
console.log(c2.x === o.x); // false

```

#### ▼ 참조에 의한 전달

객체를 가리키는 변수를 다른 변수에 할당하면 원본의 참조 값이 복사되어 전달되는 것

#### ▼ 결론

값에 의한 전달과 참조에 의한 전달은 식별자가 기억하는

**메모리 공간에 저장되어 있는 값을 복사해서 전달**한다는 면에서 동일하다.

다만, 식별자가 기억하는 메모리 공간, 즉 **변수에 저장되어 있는 값이 원시 값이나, 참조 값이나의 차이**로 동작이 다른 것이다.